

## 안정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

### 「하와이」 동포 초청 리셉션 인사말

1981년 2월 5일

이곳에 나오신 「하와이」 거주 동포 여러분!

나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러 이곳에 들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또 여러분들과 회포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이번 여행의 유종의미를 거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의 역경을 헤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겨레의 자질과 저력을 국제사회에 선양하는 경사로서,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발전이 고국의 별다른 지원없이 순전히 여러분의 자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장한 일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고국의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와 축하를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곳 「하와이」는 일 년 열두달이 내내 따뜻하고 늘 푸른나무가 무성하여 신의 축복을 받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동양과 서양의 가교가 되어 있는 「하와이」는, 예로부터 한민족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 고국을 떠난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으로 이민을 해온 곳이 바로 이곳이며, 나라가 일체의 손아귀에 들어가자 수많은 민족투사, 애국지사들이 망명을 해 와서 구국의 정열을 불태우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용기있는 선인들의 자주정신과 개척정신을 이어받은 분들로서, 자주민족국가를 꽃피울 새 시대를 향해 개척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고국은 여러분의 기여와 협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국은 이제 지난해 봄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화합속의 대약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곧 있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마치면, 정국은 더욱 탄탄해지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는 제2의 도약을 기약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국가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더하여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가공할 전략무기가 개발돼 있는 오늘날에 있어 우리가 취할 길은 단 한 가지,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1월 12일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상호방문하자고 제의한 것은 바로 이같은 민족적 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국헌에 의해 평화통일 추진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은 대통령으로서, 민족적 숙제를 해결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외의 온 겨레가 평화통일 세력으로 굳게 집결되면 통일대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포 여러분!

수교 1백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과 미국은 이번의 양국정상회담에서 혈맹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계의 자유민주세력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국간의 상호신뢰를 확인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지금 매우 가볍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하와이」 동포 여러분들로부터 애국애족의 뜨거운 정성을 선물로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나와 내외국민들의 노력이 소망스럽게 개화되어 민족의 룡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